

# 재·보선 야권연대 막판 초읽기

### 김해 을 단일화 놓고 진통... 1~2일 늦어질 수도 손학규-유시민 대리전 양상... 내년 총선 영향

4·27 재·보궐 선거 야권연대가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야권연대 협상에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4·27 재보선은 거대 여당 후보와 단일 야권 후보의 '일대일' 구도가 형성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야권연대 협상 결과는 추후 야권 내부의 역학관계는 물론 추후 총선 및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야권연대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선거 연대 방안을 놓고 각당의 이견이 적지 않은데다 일괄타결까지 추진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야권연대 문제를 위임받은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늘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좋은 결과를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날 밤 개최하기로 한 최고위원 간담회를 취소함에 따라 야권연대 협상 시한이 1~2일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야권연대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단

일화가 꼽히고 있다.

조직력에서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민주당은 유권자 직접투표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참여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참여당에게 밀릴 경우, 3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운데 순천을 포함, 2곳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성남 분당 을이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3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해 을과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 문제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운데 두 곳을 내줄 수 없다면 타 야당을 압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민주당 손학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미묘한 대립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 방식은 내년 총선에

서의 야권 후보단일화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파별 입장차로 연대 협상이 시한을 넘길 경우 현재의 협상 틀이 일괄타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이나 정당별 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 정당의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오늘 당장 야권연대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하지만 야권연대의 시대적 요구를 그 어느 정당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후 강원 원주치악예술관에서 열린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선출 합동연설회에 참석, 당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 4·27 재보선 '시계 제로'

#### 결과 따라 권력구도 '출렁'... 필승후보·전략 찾기 부심

4·27 재보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도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내에서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여의도 정치권은 이번 재보선이 향후 정국의 흐름과 여권 역학관계를 뒤늬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거 승패와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정을 무난하게 끌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해 7·28 재보선에서 '5대 3'으로 낙승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보선도 하반기 정국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 결과는 여권 내 권력지형을 변화시킬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강원지사 보궐선거와 경기 성남분당을, 경남 김해를 국회의원 보선 등 3곳 중 분당을에서만 승리하면 '본전', 강원이나 김해에서 1곳을 추가하면 '승리'로 보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재보선에 승리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동시에 하반기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안상수 체제'가 한층 공고화되면서 내년 총선까지 현 지도부 체제가 통련하는 발판을 다지게 된다.

하지만, 전통적 '뒷받'인 분당을을 야권에 내주며 전패하거나, 가까스로 분당을만 건졌을 경우에도 당 내부에

서는 내년 총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조기 전대론'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내에선 비판적 전망이 우세하다. 그만큼 일반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벌써 당 안팎에서는 "재보선 패배시 몇몇 수도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직을 던져 조기 전담대회를 성사시킬 것", "당내 소장 개혁파들이 당 지도부 교체를 요구할 것"이라는 등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오는 5월 초 예상되는 원내대표 선거를 전대와 같은 시기에 치르거나, 친이(친이명박)계가 아닌 중립적 인물을 선택해 당·정 간 역할 재정립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유시민-손학규, 진검승부 '시동'

#### 야권 '카운터 파트'... 재보선·총선·대선 양보없는 혈전 예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참여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경쟁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야권의 '카운터 파트'로서 협력과 견제 관계에 놓이게 된 두 사람은 오는 4·27 재보궐 선거에 이어 추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일단 손 대표와 유 대표는 대권 경쟁의 전초전 격인 이번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손 대표는 강원지사 수성은 물론 세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 석 이상 견져야 지지를 상승

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 유 대표는 경남 김해 을 보궐선거에서 국민참여당 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로 만들어 승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손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고위원 등 당내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대권가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 대표 역시 경남 김해 을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친노 분열의 책임론 등에 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정책과 노선 면에서 서로 다른 이력을 가진 두 사람의 외연 확대 경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도 관심사다.

중도 성향의 손 대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선명성을 내세워 '집토끼' 잡기에 주력해온 반면 강성 이미지의 유 대표는 최근 복지 문제 등에 있어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워 중간층 흡수를 시도하는 등 엇갈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밖에 머물고 있는 친노 진영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도 관심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참여당 새 대표에 유시민

#### "총선 20석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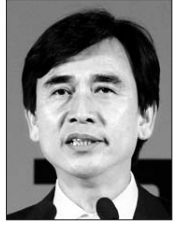
국민참여당 새 대표에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선출됐다.

유 대표는 지난 19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참여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 전체 3060표 가운데 97.03%(2969표)를 얻어 당 선됐다. 5명의 최고위원으로는 권태홍·유성찬·박 무·오옥만·문태용 후보가 선출됐다.

유 대표는 수락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는 끝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떠나고 안 계신다. 그분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면서 "오로지 참여정부가 남긴 부채만을 승계,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그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총선과 관련, "야권의 연대·연합이 아름답게 이뤄지면 한나라당과 그 야류 정당의 의석을 120석 밑으로 누를 수 있고 야당 의석 180석 중 20석 정도가 국민참여당이 책임질 몫"이라며 "정권교체를 통한 진보개혁정권의 수립은 국민의 명령으로, 이를 받들기 위해 참여당의 힘을 키



우고 다른 정당과 어울리고 뒤섞이는 일에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에 대해 "87년 민주화 이후 성공적 연합은 제1야당과 그 지도자가 주도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는데 민주당이 4·27 재보선 연대에 대해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새 지도부의 임기는 1년으로 유 대표는 내년 4월 총선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 평가 라운지

### 김효석 의원 등 한미의원외교협 출국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한미의원외교협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들은 워싱턴에서 에드 로이스 공화당 하원의원 등 미국 측 한미의원외교협회 회원들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북핵, 동북아 정세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 한미의원외교협회 회장인 정 전 대표와 민주당 김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황진하·최구식·백성운·홍일표 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참여한다.

### 민노당 화순군수 후보 백남수씨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위원장 전종덕)은 지난 19일 오후 5시 화순군 화순읍 화순군민회관에서 열린 '4·27 화순군수 재선거 민주노동당 후보선출대회'에서 백남수(사진) 후보를 화순군수 후보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 후보는 지난 16일~19일 오전까지 3일간 실시된 당원투표 결과 60%의 투표율 중 95%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이날 후보 선출대회는 이정희 민노당 대표를 비롯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백 후보는 당선 연설에서 "20년 농민운동 시작했던 그 첫 마음으로 동지들과 함께 화순군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역설했다.

### 전남도선관위, 부정감시단 발대식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27 화순군수, 목포시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목포시·화순군 선관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특별기동조사팀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박지경·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